



◇되었어 흘러가는 시간을 무념으로 바라보며 그 자리를 천여년 지켜온 왕궁리 5층석탑.

여름 날 비 오는 들녘에서 듣는 부음(牛音)은 쓸쓸하다. 빗물 머금은 채 글썽이는 풀밭레들의 초흔(草痕)은 더없이 비감(悲感)하다. '산신이 부처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소설자국을 찍으며, 녹슨 철조상을 해집고 남북을 부지런히 오가던 '민족 기업인' 한 사람이 돌연 우주 속으로 사라졌다. 무엇이 그를 역사의 감람한 벼랑으로 뛰어 내리게 했는가. 누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떨어트

렸는가. 찢겨도 푸름을 잃지 않는 청청한 소나무. 그 상처에 대고 네 땀 땀 입방울을 씻는 세태(世態)로 해충처럼 무익한 것이다. 소나무는 딱따구리를 기르지만 그 딱따구리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고 했는가. 동해 그 먼 길을 노젓던 아깁들이 오갔다면 그는 이미 장사꾼이 아닌 '급고독장자' 일 것이고, '어려서는 사람이 어려서는 것을 했다'고 깨달았다면 그는 이미 범부가 아닌 '통일보살'이었을 것이다.

만경창파(萬頃蒼波) 횡으로 종으로 줄맞춘 벼 포기들이 넘실대는 김만평야는 다가설수록 아득하다. 나라 안팎의 어지러운만 아니라면 저 들판 한 칸에 허수아비가 되어 한 세상 허허롭게 머물다 간들 무슨 허물이 될까 싶다. 흰 옷 입은 해오라기를 벼 포기들 사이로 해 종일 미꾸라지를 잡아 올리는 이곳이야말로 반도의 문전옥답이 아니었겠는가. 남으로는 만경강, 서북으로는 금강이 굽이치는 익산 땅은 수로교통의 요충지요, 군사적 요새였다. 여기에 풍부한 수량(水量)을 더하여 농업생산력까지 구비

하였으므로 익산은 고대 왕조들이 입맛을 당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 호에서 한나절 넘게 미륵사지와 마룻지를 둘러보고도 좀처럼 발길을 떼지 못하는 것은 용화산 그리메가 아직 미륵사지 동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까닭만은 아니다. 쌍룡의 봉분에 내린 잔디가 그 잔 뿌리를 들쭉이는 까닭만도 아니다. 혼색처럼 얼굴을 붉힌 봉선화가 눈길을 주는 궁평 마을 담장 밑을 그냥 지나친다면 찬 바람이 들어도 첫사랑처럼 익산의 미련은 떨치지 못할 것이다. 어디 그 뿐이라. 배롱

나무 아롱아롱 붉은 꽃빛 수를 놓는 들지 한 오층탑 발 디딘 왕궁리 언덕은 혼자 가슴에 간직하기 버거운 풍경이다. 여기에 공평을 짓고 사원을 건축하지 않으면 못배겼을 백제 무왕(600-641)의 충격이 이와 같았을 것이고, 때 되어 무심한 방초로 솟아나는 갈무리런 제국 건설의 비원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일대는 고대 궁궐 터 뿐만 아니라, 제석사지(사적 제 405호), 고도리 석불입상(보물 제46호),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289호), 사자사지, 오금사지 등 백제 시대의 크고 작은 폐사지들이 널려 있다. 백제의 30대 왕인 무왕은 이곳을 중심으로 익산 천도를 꿈꾸며 새로운 왕도 건설을 기획했다. 그리하여 그는 용화산 아래 민족 총화로 미륵사를 창건한데 이어, 제석천의 힘으로 외침을 벗어나기 위해 왕궁 부근에 내불당 성역인 제석사를 창건하게 되었다. 왕궁리사지 탐험은 삼례·전주 방향의 1번 국도를 따라 도로변에

백제 무왕 천도의 꿈 서린곳



익산 왕궁리사지



◇붉은 소나무가 부러지고 썩은 모습으로 초석과 함께하고 있는 제석사지.

논치이다.

제석천은 수미산 꼭대기 희견성(喜見城)에 사는 도리천의 왕이다. 그 이름이 Sakka 이므로 석(釋)이라 음역하였고, 신들의 임금이므로 제(帝)라 하였으며, 그 본체가 신(神)이므로, 천(天)이라 하였다. 제석천은 사천왕과 32천을 통솔하며, 불법과 불법에 귀의한 사람을 보호하고, 아수라의 군대와 싸운다. 백제의 무왕은 제석천의 힘으로 왕실을 보호하고, 국가의 번영과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석사를 세웠으나, 하늘은 뇌우를 내려 제국의 꿈조차 제행무상임을 일깨우려 하였다.

왕궁리역사유적전시관 공사가 한창인 오층석탑 주변엔 원형이 훼손된 토성이 길게 호를 두르고 있다. 이른바 이것이 전라북도기념물 제1호인 왕궁리토성이며, 이 토성 외에도 왕궁리를 중심으로 반경 4-5 km 안에는 미륵산성, 익산토성 등 백제시대의 여러 성곽이 밀집되어 있다. 1989년부터 시행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학술조사에 의해 왕궁리오층석탑을 중심으로 그 북편에 금당, 강당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출토된 명문에 의해 대관사(大官寺), 관공사(官宮寺) 등 왕실의 원찰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왕궁리 사지 답사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고도리 석불입상이다. 고도리석불 입상은 1번 국도 왼쪽은 가운데 서 있는데, 높이 4.2m의 똑같은 석불입상 2기가 옥룡천을 사이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 둘은 각각 남자와 여자인데 평소에는 만나지 못하다가 설날 해일(亥日) 자시(子時)에 옥룡천이 얼어붙으면 서로 만나 회포를 풀다가 닭이 울면 각각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마치 칠석날 견우와 직녀를 상징하는듯한 소박하기만한 백제인의 인심을 엿볼 수 있다. 삼계를 초월한 부처조차 인간의 마음에 불려 들어, 왕궁의 이정표이거나 수호신으로 삼은 '익산문화'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시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남원 만복사지 사진=고영배 기자

사자사지·오금사지등 폐사지 즐비

왕궁리 마을 전체가 제석사지...소실→중창→폐사 금당지 출토명문 大官寺·官宮寺...왕실원찰 추정

있다. 왕궁리 사적들을 살펴보고, 제석사지와 고도리 석불입상을 차례로 순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제석사지의 매력은 펼쳐지지 못하는 조바심은 골장 궁평마을 논로를 달려 제석사지로 향하지 않을 수 없다. 궁평 마을에서 제석사지를 찾기 위해서는 수미산 허리를 헐듯 '제석들'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으면 안 된다. 제석사지는 현재 홍씨 집성촌인 왕궁리 247번지 일대에 걸쳐 있다. 마을 전체가 사지인 셈이다. 어디가 금당지이고 강당지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익산시에서는 1998년 5월 이곳 일대를 사지로 지정, 발굴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을전체가 사지이기 때문에 겨우 기와 터 정도만 편이집을 했을 뿐이다.

제석사지의 환경에 관해서는 <관세음흥기(觀世音應驗記)>에 그 기록이 나타나

있다. 환경연대는 밝힐 수 없으나, 백적으로 소실되었다가 중창되었으며, 어느 시기에 다시 폐사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입구 여남은 노송들이 허리를 비트는 숲속이 침침묵묵이 있던 답지이다. 들녘 한 가운데 자리한 숲속이라 백락을 자주 맞는 탓인지 부러진 소나무 가지들이 지금도 빨갛게 말라있다. 답지에는 전설 같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려는 듯 투루(土壘) 중앙에 직사각형 구멍이 뚫려있는 심초석이 황금고 있다. 답지 아래로는 슬그머니 들어찬 무덤 한기가 터가 센 탓인지 봉분의 잔디가 엉성하여 이끼 같은 묘비명조차 울췌스름기만 하다. 담장과 담장 사이로 높은 감나무가 가지를 펴고,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살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음과 외지인들의 기웃거림을 경계하는



옥룡천 경계로 석불입상 2기 '견우와 직녀' 상징 설화담겨
하천 얼어붙으면 서로 만나 회포 새벽에 닭 울면 각자의 자리로



왕궁리사지터 가는길

익산 왕궁리 사지는 금마네거리에서 전주·삼례 방향의 1번국도를 따라 15km 정도 가면 된다. 오층석탑이 있는 기암터 일대는 현재도 궁궐터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석사지는 오층석탑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궁평마을에 있으며, 홍씨 집성촌인 이 마을 전체가 폐사지이다.

불교문화상품전문 쇼핑몰 - www.mahamall.co.kr 주문전화 02) 732-1520

한가위 大 기획 상품전

마하물 추천상품

- 도자기연꽃**: 상품 1개, 사이즈: 14cm x 13cm, 상품가: 33,000원
- 가경용 반야심경 향로**: 반야심경 경판 무구 한배, 굵은 재질 및 가경용 향로로 사용하시기를 매우 좋습니다. 사이즈: 4.5cm(가로) x 8cm(세로), 상품가: 30,000원
- 천연향구경소리-오닝**: 지관산 해성보사로 만들대 내 천연향으로 대강이 울어지고, 거본이 상쾌해지며 스트레스 해소해 줍니다. 상품가: 20,000원

신한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

5만원이상 구매자 2-3개월 무이자 할부

- 가경용 촛대 (모양명:6004)**: 상품: 1개, 사이즈: 8cm(가로) x 7cm(세로) x 7cm(높이) x 1SET = 촛대2개, 상품가: 30,000원
- 풍경향방 향세트**: 상품가: 20,000원, 30,000원, 12,000원, 35,000원, 40,000원

녹차, 대구

- 백련차-우전**: 상품가: 100,000원(100g), 90,000원(50g)
- 백련차-세죽**: 상품가: 60,000원(100g), 30,000원(50g)
- 백련차-중죽**: 상품가: 40,000원(100g), 20,000원(50g)
- 백련일차**: 상품가: 10,000원(100g)

마하물 기획상품

- 원적외선 건강양말세트**: 제품구성: 1세미 6쌍, (과물비크, 흰색, 1, 흰색, 1) 폴라텍 1), 상품가: 59,800원
- 희망석 방석**: 희망 가우뎡석의 가연성, 입체 디자인, 휴대도 용이, 원 특색을 중점시키는 고급가 있습니다. 사이즈: 38.5cm x 35.5cm, 색상: 연꽃, 상구, 상품가: 65,000원
- 매화정향죽**: 별첨가 향과 같이 맛과 향을 증진시켜주는 매화향 향미가 있습니다. 사이즈: 30cm x 45cm, 상품가: 65,000원
- 스님용 회당석 보육**: 회당석 중 원적외선, 정공, 양자,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보육기입니다. 보육기 사이즈: 90cm(가로) x 180cm(세로) x 10cm(두께), 상품가: 2,800,000원
- 건강지갑봉**: 천연원료가 오랜 연구로 만들어진 건강과 행복을 위한 건강 지갑봉입니다. 상품가: 16,000원
- 목구이판**: 세로가 넓고 불에 잘 타는 목구이판, 다양한 수제이로 다양한 요리 가능합니다. 사이즈: 30cm x 35cm, 상품가: 25,000원

- 연꽃보드(겉이형)**: 골판지 박을 위한 크라운 그래프를 있는 부도입니다. 사이즈: 100cm, 무리한 환경, 주위에 안전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보드입니다. 상품가: 18,000원
- 축단목 탁자**: 재질: 목단목 1종류, 지구상에서 흔하지는 나무로 최고로 단단하고 견고하며, 유물과 화물 운반이 편리한, 장문해사할수있는 나무가 탁자입니다. 상품가: 89,000원
- 오기기피 방향제세트**: 상품구성: 방향제 6pcs + 향초 2pcs + 스프레이(100ml) 1pcs, 상품가: 39,800원
- 실버건강팔찌**: 상품구성: 건강, 방충, 3D박을 누르세요. 고급 원재료로 디자인, 건강을 지켜주는 팔찌, 자력효과를 높여, 상품가: 99,000원
- 원기통양초**: 24개입 - 상품가: 67,000원, 700개입 - 상품가: 56,000원
- 동초(小)**: 상품가: 700개입 - 상품가: 56,000원
- 무궁해식물성양초**: 1. 동초 - 50개입 - 상품가: 56,000원, 2. 동초 - 20개입 - 상품가: 60,000원, 3. 동초 - 12개입 - 상품가: 48,000원

- 3인다가세트**: 상품가: 39,800원
- 5인다가세트**: 상품가: 45,000원

자연에 광고된 상품보다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http://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9월 3일 까지 구입하시는분 중 3개이상 구입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 주문전화: 02)732-1520